

## 추억의 맛

이명희

한국식품연구원 시설자재실

어린시절을 기억해보면 사실 먹는 것에 대한 애뜻함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었다. 특별하게 먹을 것을 탐하지도 않았고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에 먹을거리는 그저 소박한 밥상이 전부였을 테니 말이다. 밥상에 올라온 반찬 중에서도 명절 때나 먹는 육류도 쇠고기만 먹었고 냄새나는 돼지고기는 고개를 돌리기 일췌였다. 생선은 갈치와 콩치가 전부였는데, 어릴 때는 갈치보다 콩치가 더 비리다고 싫어했던 웃지 못할 그런 편식을 하기도 했다. 한번 올라온 육류나 생선류의 찬이 밥상에 다시 올라오면 절대 젓가락을 대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노라 말하면 무척 까다로운 식성이라고 말들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이것저것 다양하게 맛을 익히지 못한 때문이었다. 동생과 나는 국민학교 때부터 시력이 약간 떨어져 있었다. 그런 자식들을 걱정해서 아버지는 소간을 사다 찢어서 우리 앞에 내놓으시고는 먹으라고 종용하셨지만 우리는 한 점도 먹지 않은 기억도 있다. 또 어느 때는 우둘투둘하고 이상하게 생긴 해삼을 사 가지고 오셔서 먹어보라고, 한 점만 먹어보라고 하셔서 입에 넣었다 바로 뱉어버린 적도 있다.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맛에는 쉽게 마음이 가지 않은 시절이었다.

그때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간식거리래야 찢은 고구마를 말려서 분을 낸 것을 먹었거나, 감자나 고구마를 찌서 먹기도 하고, 들깨를 한 자루 볶아놓으면 심심할 때마다 그것을 퍼다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한겨울에는 김장 김치독에서 무를 꺼내 먹은 기억도 있다. 물론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도 십원짜리 하나만 손에 쥐어주어도 점방으로 달려가면 사 먹을 것이 꽤 있었지만, 그건 어찌다 손님이 주신 푼돈이나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음식이 넉넉한 때인데도 밖으로 달려 나가 오뎅꼬치를 간장에 찍어 먹거나 달고나 같은 것을 녹여 먹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했다. 지금도 추억의 맛으로 길에서 사 먹기도 하고 도구를 사서 그때를 추억하며 가끔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 맛이 어찌나 좋았던지. 먹다가 데기도 하고 심부름 가다가 흘려서 뽑기 하는 아저씨 앞에 쪼그리고 앉아 닳은 놓다가 돈을 잃어버려 혼나기도 했던 기억이 있다. 아이 때 흘렸던 불량 식품의 맛이 진짜 추억의 맛이니, 이것이 도시에 사는 아이들의 서글픈 현실이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음식도 있었다. 춘장을 사다가 집에서 만들어준 ‘짜장면’이나 ‘팔칼국수’ 정도면 그야말로 특별식이었다. ‘짜장’을 가득 끓여서 온 가족이 국수에 비벼 먹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다.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먹는 ‘짜장면’을 남들처럼 먹거나 했었는지 아득하다. 아무튼 요즘에는 먹을 것이 지천이니 이런 것쯤이야 추억의 음식이 될 수도 없을 테고 어떤 향수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추억의 맛으로 지금도 ‘짜장면’은 언제나 맛있는 음식 중 하나이고, ‘팔칼국수’나 ‘팔새알심죽’도 진짜 맛있는 음식이다.

이제는 그러한 음식들을 집에서 해 먹지 않는다. 집에서 식구들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먹을 시간도 없을뿐더러 손 많이 가는 음식을 해 먹으려는 바지런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흔한 부침개 하나도 사다 먹기 일쑤고 좀 더 손 가는 빈대떡 같은 것은 전문 체인점에 달려가면 언제나 쉽게 살 수 있으니 애써 음식을 만드는 일에 공을 들이지 않게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비가 내려 기름진 게 당기는 날이면 집에 있는 호박이나 부추를 송송 썰어 넣어 부침개 몇 장 부쳐서는 옆집과 나눠 먹는 재미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을 들고 가면 반가워하지 않을까 싶어 나눠 먹는 즐거움도 없으니 사는 것이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다. 이제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기저기 유명한 집을 찾아가 먹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집이어도, 줄을 길게 늘어서서 기다려야 할 만큼 맛있는 음식점이라도 예전에 함께 나눠 먹으며 즐기던 맛을 찾기는 쉽지 않다.

얼마 전에는 종로4가에 있는 광장시장을 처음으로 가게 되었다. 시장통에 있는 음식점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뭐든 맛있다는 말을 한다. 힐끗 간판만 보고 지나쳤던 시장은 무척 규모가 커서 아마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기 십상일 듯싶었다. 그날은 녹두전에 막걸리가 먹고 싶다는 생각에 사람들을 모아서 찾아갔다. 유명하다는 가게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도무지 들어갈 순서가 돌아올 것 같지 않았다. 주변을 잠깐 돌다가 사람이 많지 않아 빈자리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 순대와 돼지 껍데기를 시키니 녹두전을 그 집에서 시켜다주었다. 막걸리에 녹두전을 먹으니 금방 배가 불렀다. 기름에 튀기듯 부쳐낸 녹두전에서는 옛 기억을 추억할 맛이 살아나지 않아서 은근히 실망스러웠다. 늦은 저녁으로 밥한 주걱 된장국에 말아 드시며 말을 섞던 아주머니가 이것저것 서비스를 얹어주시지 않았다면, 맛은 추억을 불러일으키기에 좀 부족했을 것이다.

그랬다.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결국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서로를 위해주며 따뜻한 음식으로 위안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기억에 남는다. 엄마가 해주시는 평범하고 보통의 맛이지만 다른 누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정겨운 맛이 결국 음식 맛이고 그 맛이 추억으로 고스란히

우리 뇌리 속에 박혀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조금 번거롭고 손이 가는 일이지만 한 가지씩 직접 만들어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는 추억을 자꾸만 쌓아가야 할 때인 것 같다.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하루의 안부를 확인하면서 먹는 음식이야말로 따뜻한 추억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몸도 온전히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식구들과 함께 뭘 만들어 드시려는지요?

